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### AIG 아시아 지부 AIA, 매각협상 결렬

- 영국 보험회사 푸르덴셜(Prudential)과 미국 AIG가 추진 중이던 AIG의 아시아 지역 자회사 AIA에 대한 매각협상이 인수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됨.
  - AIG는 금융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1,8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, 이를 상환하기 위해 영국 푸르덴셜과 아시아지역 자회사인 AIA의 매각을 추진해옴.
  - 그러나 최초 AIG가 제시한 매각금액 355억 달러에 대한 푸르덴셜 주주들의 반대로 푸르덴셜은 이보다 낮은 304억 달러로 재협상을 요구하였고, 이를 AIG가 거부하면서 매각논의는 결렬됨.
  - 푸르덴셜은 이번 협상결렬로 수수료를 포함해 총 4억 5천만 파운드(6억 6천만 달러)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.
  
- 푸르덴셜과의 매각협상 결렬 이후 AIG는 AIA를 아시아지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짐.
  - AIG는 AIA의 매각협상 이전에도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으며, AIG의 CEO 벤모쉬(Benmosche)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현재 AIA의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.
  - 자산규모가 큰 AIA의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인 대안이나, IPO의 경우 자금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.
  
- 한편 가이트너(Geithner) 미재무장관은 AIA에 대한 매각협상 결렬이 AIG의 구제금융 상환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.
  - 가이트너 장관은 푸르덴셜의 낮은 인수가 제시로 인수협상이 결렬되었으며, AIG의 경영진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AIG경영진들은 이미 AIG의 정상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함.
  - 2008년 99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던 AIG의 영업실적은 2010년 1/4분기 15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.

(Businessweek, 6/2 등)